

신안서 민간주도 국내 첫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

국내 민간주도 최초로 상업운전에 들어간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이 11일 신안에서 열린 전남 재생에너지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날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 토마스 위베 폴슨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정부·지자체·유관기관·발전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초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상업운전에 성공한 사례로, 전남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전남도는 군 레이다 차폐 등 작전성 해소와 인허가 절차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량 35.6GW 중 22.2GW(62.4%)를 보유한 국내 최대 해상풍력 중심지다. 올해 4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인 3.2GW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집적화단지 지정됐다. 10월에는 신안집적화단지 0.5GW 확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1일 신안라마다호텔&씨원리조트에서 열린 'SKE&S 전남해상풍력1단지(96MW) 준공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SK이노 E&S·덴마크 CIP, 8천700억 투자 96MW 조성 5월 상업운전 시작으로 전남 재생에너지시대 본격 시작

대와 3.6GW 규모의 진도 집적화단지 지정도 신청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의 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남도는 2035년까지 전남 동·서부권에 30GW 규모의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자재 생산부터 설치·운송·유지보수까지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해상

풍력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전선업계 1위인 LS그룹이 해남 화원산단에 국내 최초 '해상풍력 전용 설치항만' 투자협약을 하는 등 민간투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오픈AI와 SK그룹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삼성SDS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전남 전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신재생에너지와 AI 산업 분야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민간 주도 최초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며 겪었을 여러 규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상업운전을 성공한 발전사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신안에서 추진 중인 햇빛·바람연금을 확대해 도민에게 소득이 돌아가는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염성호 기자

광주 남구, 보건복지부 '영양관리 사업' 평가 2관왕 생활터 중심 비만 예방 사업 추진 우수기관상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영양관리 사업 분야 평가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11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실적 및 시행 조례' 평가와 '지역사회 비만 예방 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각각 공개했다.

먼저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평가는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제정한 영양관리 관련 조례와 2025년 국민 영양관리 시행계획 및 2024년 추진 실적을 각각 평가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조례 분야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법학과 행정학, 영양 분야 전문가 6인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했으며, 이들은 영양 관리사업 지원 근거 조항 여부와 특성화, 공정성, 주민의견 수렴 절차, 관계 기관간 연계·협력까지 5가지 세부 지표에 따라 조례를 평가했다.

남구는 영양관리 관련 조례 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역 영양 환경 개선 차원에서 지난해 연말 국민영양관리법과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신규 조례를 제정해 지역 단위 영양관리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영양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행정 체계를 확립한 점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또 영유아와 어르신 등 영양 취약계층의 생애주기를 포괄한 통합 관리 추진 체계를 마련한 뒤 어린이 건강성장 체험교실 등 맞춤형 사업을 적극 추진해 평가위원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비만 예방 관리 사업 우수기관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력도와 연계·협력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지속가능성, 차별성까지 6개 지표를 반영해 평가를 진행했다.

남구는 성장기 아동의 자세 교정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꽃뚱뚱 신체 만들기'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와 연계한 건강특화 축제 개최, 관내 초등학교 및 돌봄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한 돌봄놀이터 운영 등 생활터 중심의 예방 사업을 펼쳐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평가를 통해 주민 건강을 위해 추진한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의 성과가 입증됐다"면서 "건강 불평등 해소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재일 기자

서구, 만성질환 관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장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광주광역시 서구가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접근성 강화에 대한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서구는 11일 '2025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유공 표창'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인지를 제고를 위한 홍보 ▲고혈압·당뇨·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형질환의 예방·관리 인식

향상 등의 지표를 바탕으로 종합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12개 보건소를 최종 선정했다.

서구는 ▲고위험군 대상 운동·영양 교실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당뇨병 합병증 및 당화혈색소 검사비 지원 ▲만성질환자 대상 혈압·혈당기 대어 ▲내 혈압·혈당 알기, '자기혈관 숫자 알기' 등 찾아가는 캠페인 운영 ▲건강한 일상을 위한 만성질환자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등록 관리에 힘써오고 있다.



특히 서구는 주민의 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무2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금호종합복지관 내 '건강돌봄터'를 운영해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원구 서구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 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북구, '건강주치의제' 추진 협력체계 구축

환자 연계·의료서비스 제공 등 상호 협력 골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2·3차 의료기관 9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주치의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1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북구청 2층 상강실에서 '건강주치의의 연계·협력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식은 문인 북구청장, 협약 참여 기관장, 보건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취지 설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광주병원 ▲운암한국병원 ▲일곡병원 ▲희망병원 ▲해피부병원 등 총 9개소이다.

협약서에는 북구가 건강주치의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사업 홍보를 담당하며, 2·3차 병원들은 일차의료기관과 업무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힘을 보탠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진료·회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병원간 환자 연계, 만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 성과 공유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북구는 1차 의료기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주치의제 추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내년 예정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건강주치의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일차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의 중대형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통합 의료체계를 갖추고 건강주치의제의 선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현근 기자

☎062-525-9775

1면에서 이어짐

한편 나주시는 전남도와 합동으로 오는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지 운영 행사'를 개최한다.

인공태양은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서 고갈 위기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게임체인저이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에너지 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공태양 연구

시설은 2027년 착공, 2036년 완공을 목표로 나주시 왕곡면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인접부지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설이 구축되면 3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입주하고 2천여 명의 전문 연구 인력과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만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예측된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최종 확정에 따라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예타 통과 지원과 과기부-전라남도-나주시 간 업무협약 체결 후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